

[보도자료]**“공직선거의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 개발에 관한 연구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중심으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g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김 원 홍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01, 이메일: kwh56@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 『공직선거의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 개발에 관한 연구 -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을 개발하여, 개발한 평가 틀로 각 정당에서 제공한 여성정책 공약을 평가하였다.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은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을 개발하였음.

우리나라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와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 등 여성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이는 그 당시 한국사회가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대통령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면서 50%가 넘는 여성유권자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정책 공약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간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의 형식으로, 정부의 여성정책 이행 평가에 초

점이 맞춰져 왔다. 이에 본원에서 제17대 대선을 맞아 매니페스토에 부합한 여성정책 공약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 틀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평가 틀로 각 정당에서 제공한 여성정책 공약을 평가하였다. 이는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을 통하여 각 정당들은 보다 나은 여성정책 공약을 만들어 나가고, 유권자들 특히 여성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직선거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 및 적용방법

이 평가 틀을 사용하여 한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이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와 성 인지성, 양적 평가로서 각 후보의 여성정책 관심분야, 질적 평가로서 여성정책 목표의 정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 전체 공약에서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비중 평가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비중 평가로 여성정책 공약의 우선성과 성 인지적 관점에 관한 서술적 평가이다. 이를 위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 20대 정책공약 중 여성공약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체 정책이 사회변화에 대비한 성별 요구 및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정책 자료에 성 인지 통계를 수집·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양적 평가

여성정책 공약 전반에 대한 양적 평가로서 각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한 수량적 평가이다. 여기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 범주와 여성정책기본계획 제1, 2, 3차 계획, 향후 5년간의 여성정책의 여건과 관련한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여성정책의 범주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복지 분야, 문화 분야를 포괄한 9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 9가지 여성정책 영역은 ① 여성 일자리 보장, ② 여성인적자원 개발, ③ 돌봄 노동의 사회적 책임 확대, ④ 여성의 대표성 강화, ⑤ 취약계층 여성 복지 증진, ⑥ 여성건강 증진, ⑦ 통일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⑧ 성평등 문화 확산, ⑨ 여성정책 추진강화 등이다.

- 이러한 9가지 여성정책 영역을 근거로 35개의 세부 여성정책 항목을 설정하였다. 여성정책 공약의 양적 평가 방법은 각각의 개별항목에 해당되는 정책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개별항목 당 3점씩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여성정책공약 중 여성일자리보장 영역은 5개의 개별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는데 A당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속에 5개의 세부항목이 다 제시되어 있을 경우, 그 후보는 여성일자리 보장이라는 영역에서 15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5가지 개별항목 이외의 다른 세부정책이 제시되었을 경우 각 개별항목 당 1점씩 추가된다. 따라서 A당 후보의 여성정책 중 여성일자리보장 정책분야에 평가지표에 제시된 5가지 항목 이외의 정책이 3가지 더 있을 경우 A당 후보는 일자리 영역 평가에서 18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9개 영역의 35개 세부항목을 모두 제시한 경우 105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세부정책이 추가되었을 경우 10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

개별 여성정책에 대한 질적인 수준평가로 각 정당의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을 4가지 측면 즉, 구체성, 반응성, 실현가능성, 성 인지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각 정당의 후보자가 어느 정도로 여성정책에 대한 실현의지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약정책이 여성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평가는 서술적 평가와 수량적 평가를 병행하고자 한다. 우선 평가지표별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5점, 보통이라고 판단되면 3점,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1점을 획득하게 되며 서술적 평가는 양적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별평가의 목적은 각 정당의 후보자가 수많은 여성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여성계의 요구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여성공약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 만약 제시된 여성정책이 질적으로 우수한 경우 2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각 정당의 후보자가 제시한 여성공약 중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정책 공약이 2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17대 대선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평가사례

이러한 평가 틀을 바탕으로 총 6명의 대통령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을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 선정은 2008년 11월 25일 현재 여론조사 결과 5%이상 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해당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대한민국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전체 공약에 대한 여성정책 비중이 가장 높은 후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20대 정책 공약 중 공약8.에서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약 9.에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각각 공약 10.에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공약 14.에서 여성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다.

- 영역별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양적 평가 비교의 경우 여성정책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고,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민주당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후보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여성정책 영역을 살펴보았다. 제1순위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영역이 '취약계층여성복지 증진'인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 무소속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확대' 공약이 제일 많았다. 2순위 공약의 영역을 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이 '여성일자리 보장'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확대'가 같았고,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여성일자리 보장', 창조한국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취약계층여성복지증진'이었다.

- 영역별 개별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 비교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에서 12대 정책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나라 경영에 주도적 참여로 20점 만점에

16점을 획득했다. 그다음으로는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돌봄의 사회적 지원 확대가 15.3점,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가 14.9점,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이 각각 14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와 일상에서의 차별해소인데 각각 12점을 획득하였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에서 먼저 목표별로 평균점수를 보면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가 가장 높게 나와, 이명박 후보의 대선 구호인 ‘경제대통령’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공약의 수나 질적 평가에 있어 가장 많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12. ‘여성이 동참하는 평화통일’로 10점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보통의 점수를 획득하였다. 대체적으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에 따른 현실가능성의 부분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을 중시여기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목표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보호나 실행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양한 여성정책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여성정책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질적 평가는 실험적인 것이다.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권영길 후보 그리고 이인제 후보의 경우 공약 전체가 평가되었으나, 문국현과 이회창 후보는 공약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질적 평가에 부적합하여 제외하였다. 앞으로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4. 여성정책 공약 평가 틀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향후 여성정책 공약 틀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여성정책 평가지표 분석 위원회’와 같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을 공약한 후보자들의 여성정책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여성정책의 범주 및 평가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여성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로서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어 설명

* 구체성(Specific)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 측정가능한 공약인가 하는 점이다.

* 반응성(Responsiveness)

여성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공약사업으로 피해보는 층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 실현가능성(Achievable)

재원조달방법이 실현가능한가, 시간계획과 목표달성 기한이 명시적이며 실현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 성 인지성(Gender Sensitivity)

성 인지적 통계와 예산을 사용하였는가, 공약의 이행방법이 성 인지적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